

2019학년도 가을학기 파견 공과대학 주관 교환학생 모집

- ▶ 지원방법 : 서울대 포털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내용 참조) (1월 15일(화)부터 온라인지원 가능)
 - ▶ 원서마감 : 2019년 3월 11일(월) 18시까지 (* 동경대에 한하여 2019년 2월 11일(월) 18시까지)
- 자세한 사항은 알림광장-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닫기

로그인 ENGLISH

- 공과대학소개
- 교육과정
- 대학생활
- 예약신청 및 IT 서비스
- 온라인 강의
- 소통광장
- 알림광장

- 알림광장
- 홍보광장
- 공대뉴스광장

알림광장

공지사항

홍보광장

공대뉴스광장

- 월간뉴스모음
- 포토갤러리
- 홍보동영상
- 서울공대소식
-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소식

세미나일정

강학알림

취업광장

자료광장

창업정보

공대뉴스광장

서울대 공대,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시상식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18.10.17 | 조회수 : 345번 읽음

서울대 공대,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시상식 개최



▲ (왼쪽부터) 서울대 건축학과 조항만 부교수, 산업공학과 이경식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윤찬 교수, 건설환경공학부 송준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현)는 17일 12시 서울대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은 교육분야에서 3명, 학술분야에서 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교육분야 수상자는 건축학과 조항만 부교수, 산업공학과 이경식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정윤찬 교수이며 학술분야 수상자는 건설환경공학부 송준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고승환 교수,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다.

신양 공학 학술상은 서울대 공대 동문이자 태성고무화학(주)의 창업자인故정석규 신양문화재단 이사장이 젊은 교수들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에 출연하며 제정됐다. 본 상은 정 이사장의 호를 따서 명명됐으며, 서울대 공대에서 정교수 및 부교수로 승진한 49세 이하의 젊은 교수들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교수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2005년 처음 제정된 이래 올해가 14회째로, 올해까지 총 81명의 교수들이 이 상을 수상해 연구활동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신양 공학 학술상을 제정한故정석규 이사장은 1952년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50여년간 태성고무화학(주)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01년에는 회사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양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며, 서울대에 첨단 정보검색실과 열람실을 구비한 신양 학술정보 1호관, 2호관, 3호관을 건립하고 기증한 바 있다. 2005년부터는 신양문화재단을 교내에 있는 신양학술정보관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펼치다가 지난 2015년 85세로 작고했다. 현재 신양문화재단은 서울대에서 운영 중이다.

첨부파일

20181017_서울대공대_서울대 공대 2018년도 신양 공학 학술상 시상식 개최.docx

목록

이전글

서울대 박찬국 교수 연구실 김선영 학생, 美 위성항법시스템 학회 학생논문상 수상

공과대학소개 E-학장실 서울공과대학은 조직 및 인력 자랑스런 공대인 동창회 공대지원시설 캠퍼스안내	교육과정 학과/학부 대학원 공개강좌 수강편람	대학생활 학사일정 학사안내 장학금안내 국제교류 학생활동	예약신청 및 IT 서비스 예약 및 신청 SW 서비스 무선랜 서비스 공간관리	온라인 강의 비전공/교양 교과목 온라인강의 전공교과목 온라인 강의 추천동영상 MOOC/강연 리스트 강의자료 OCW 연구결과발표	소통광장 공모전 광장 자유광장 학생행사 생활공감제안광장 건의사항 자주묻는질문	알림광장 공지사항 홍보광장 세미나일정 장학알림 취업광장 자료광장 창업정보
--	---	--	--	--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찾아오시는길



학과/학부

관련사이트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화_ 02-880-7001 (학장실), 880-7005~6(서무), 7008~7009(교무), 7010(학생)

Copyright © College of Engineering, SNU. All rights reserved.

기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만x만 기부
바로가기